

법화경의 개요

1) 원전과 한역

법화경은 1 ~ 2세기경에 인도에서 편찬되었습니다. 법화경은 산스크리트라는 언어로 되어 있으며 많은 법화경 사본이 인도와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 중국에 전해진 법화경은 3세기에 한역되었습니다. 법화경의 한역에는 여섯종류가 있다고 합니다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현존하는 세 가지 종류의 한역본은, (ㄱ) 축법호가 번역한 <장법화경>(3세기), (ㄴ) 구마라습이 번역한 <묘법연화경>(5세기), (ㄷ) 사나굴다 달마답다가 같이 번역한 <참품법화경>(7세기)입니다.

그 중에서 구마라습(350~409년경)이 번역한 <묘법연화경>이 가장 뛰어난 명역으로서 유포되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도 이 <묘법연화경>만이 석존의 참뜻을 올바르게 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타전부인답사>에는 [나습 1인만이 교주 석존의 경문에 사권의 말을 넣지 않은 사람입니다대 (어서 1007쪽)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 제명

법화경의 제호인 '묘법연화경'은 산스크리트 원전에서는 '사마라다 푸다리카 수투라'라고 합니다. '사다르'는 '올바른 법', '푸다리카'는 '백련화', '수투라'는 '경'이라는 뜻입니다. 구마라습은 이것을 '묘법연화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3) 28품과 개결 2경

법화경은 28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방편품 제2'나 '여래수량품 제 16'처럼 품의 명칭과 번호를 함께 부릅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3~4품씩을 한 권으로 하여 8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천대 대사는 무량의경 1권을 법화경의 '개결', 보현경 <관보현보살행법경> 1권을 '결장'으로 하였습니다. 이 두가지를 합하여 '개결 2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법화경과 개결 2경을 합하여 '법화 3부경'이라고 합니다.

4) 적분과 본문

법화경 28품 중에, 서품 제1부터 인라행품 제14까지의 전반 14품을 '적문'이라고 하며, 중지용출품 제15부터 보현보살권발품 제28까지의 후반 14품을 '본문'이라고 합니다. 적문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방편품 제2이며 본문의 중심은 여래수량품 제16입니다.

'본'은 '본자' 또는 '본체'라는 뜻이며, '작'은 '자취' 또는 '그림자'라는 뜻으로 부처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본문의 부처인 구원실성의 석존은 부처의 본체이기 때문에 본물이라고 하며 적문의 부처인 시정정각의 석존은 본체가 남긴 자취 또는 본체에서 투영하는 그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불이라고 합니다. 또 석존이 여러 경전에 설했다고 하는 여러 종류의 부처도 본불의 한쪽 면을 나타낸 적불에 해당합니다. 천태는, 본불은 하늘에 떠있는 달 즉 천월이며 적불은 여러 연못에 비추어 있는 달 그림자 즉 지월이라고 비유하였습니다.

5) 이처삼회

법화경 서품 제1부터 견보탑품 제11까지의 전반부는 영추산에서 실시된 설법의 모임(법회, 회좌)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견보탑품 제11부터 축루품 제22까지의 중반부는 허공에서 실시된 법회를 그 배경으로 하며 마지막 약왕보살본사품 제23부터 보현보살권발품 제28까지는 다시 영추산에서 실시된 모임이 그 배경입니다.

이와 같이 법화경의 설법은 영추산과 허공의 두 곳에서 실시되었으며, 법회는 3회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처삼회'라고 합니다. 또 3회의 법회는 순서대로 '전영추산', '허공회', '후영추산' 이라고 합니다.

6) 법화경의 대강

법화경의 서품 제1에서는 1만2천 명에 이르는 성문의 군중, 8만 명의 보살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인 천 용왕, 이수라 등이 영추산에 모이고 석존이 삼매에 들어가 대지를 육종으로 흔드는 등, 여러 가지 서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방편품 제2에서는 석존이 삼매에서 일어나 법화경의 설법을 시작, 석존은 모든 부처가 가르침을 살하는 근본 목적은 일체중생을 성불시키는 것에 있다고 밝힙니다.

법화경 이전의 경들에서는 성문도, 연각도, 보살도 등이 설해져 있지만 석존은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를 설한 것은 부처의 본의가 아니며 만인을 성불로 향하게 한다는 단지 하나의 도만이 부처의 진의임을 밝혔습니다. 만인을 성불로 향하게 하는 단지 하나의 도를 ‘일승(단 하나뿐인 탈것을 뜻함, 탈것은 가르침을 비유한 말)’ 또는 ‘일불승(단 하나뿐인 부처의 경에로 나르는 수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화경 그 자체가 일승입니다.

만인 성불의 길을 설하는 법화경을 일승 또는 일불승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 법화경 이전의 여러 경에서 설하고 있는 성문도, 연각도, 보살도의 세 가지를 삼승이라고 합니다. 또 부처가 제경에서 삼승을 설한 것은 일불승을 밝히기 위한 방편(수단)이라고 법화경에 설해져 있는데 이것을 천태는 ‘개심현일(삼을 열어서 일을 나타낸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존은 사리불의 성문들 일행을 비롯, 영추산에 모여 법화경을 듣고 신수한 일체의 사람들이 미래에 틀림없이 성불할 것이라고 명언하며 보증합니다. 이렇게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고 보증, 예언하는 것을 기별 또는 수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법화경 적문에서는, 법화경 이외의 경전에서 부정되었던 이승(성문과 연각)의 성불이 큰 골자를 이룹니다. 이승의 성불을 이승작불이라고도 합니다.

허공회에 들어가면 석존의 입멸 후, 특히 말법에 법화경을 누가 흥통할 것인가를 테마로 드라마가 전개되고 멸후 법화경 흥통을 의탁하는 부처의 의식이 실시됩니다. 먼저 견보탑품 제11에서는 칠보로 장식된 거대한 보탑이 대지에서 솟아올라 공중에 떠오릅니다. 그 보탑 안에 있던 다보여래가 법화경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어서 사방세계, 즉 모든 우주로부터 일체의 부처와 보살이 모여들어 보탑이 열리고 보탑 속에 석존과 다보여래가 나란히 있습니다. 영추산에 있던 대중(설법의 청중)도 허공(공중)으로 떠오르자 허공에서의 설법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석존의 멸후, 말법에 누가 법화경을 넓힐 것인가에 대해 설법이 계속됩니다. 견보탑품에서는 석존이 육난구이를 설하여 보살들에게 멸후 흥경(경을 넓힘)의 맹세를 권유합니다.

육난구이는 부처 멸후의 악세에 법화경을 넓히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며 흥경의 맹세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육난은, 멸후에 법화경을 (1) 잘 듣고 (2) 쓰고 (3) 읽고 (4) 한 사람을 위해 설하고 (5) 의의를 묻고 (6) 수지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이는 예를 들어 수미산을 다른 무수한 불도에 던져 놓는 것, 대지를 발등에 두고 범천까지 올라가는 것, 마른 풀을 등에 지고 대화 속에 들어가서 타지 않는 것, 갠지스 강의 모래 숫자만큼 많은 경전을 설하는 등, 보통이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9가지 모두 멸후 악세에 법화경을 흥경하는 것보다 간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법화경에는 법화경 이전의 제경에서는 부정되었던 악인 성불(제바달디의 성불)과 여인성불(용녀의 성불)도 설해져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 만인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멸후 흥경을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허공회 회장에 있는 보살과 성문들이 흥경을 맹세합니다. 특히 권지품 제13에서는 보살들이 삼류의 강적을 극복하고 흥경해 갈 것을 맹세합니다. (삼류의 강적에 대해서는 본문 357쪽 참조).

그러나 석존은 법화경을 넓히겠다는 보살들을 만류하고 종지용출품 제15에서 멸후 흥경을 담당할 사람으로서 자신이 과거부터 교화해 왔다는 무수한 보살을 대지 아래에서 나오게 합니다. 이들이 지용의 보살입니다.

이 무수한 보살은 도저히 금생에서 성불하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석존이 교화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수한 보살을 언제 어디서 교화했느냐는 사람들의 의문에 대하여 여러수량품 제16에서 석존은 자신의 본래 경지를 밝힙니다. 즉 석존은 금생에서 처음으로 성불한 것이 아니라 오백전전겁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과거에 성불했으며, 그 이후 사바 세계(현실 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해 온, 장원한 수명을 가진 부처라고 밝혔습니다. <구원실상>

그리고 그 구원실성의 부처를 산수하면 무량의 공덕이 있다고 설합니다. 또 석존의 과거세 모습인 불경보살의 실천을 통해 만인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믿고 사람들을 끌까지 존경해 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합니다. 이 불경보살의 실천은 법화경에서 설하는 보살행의 전형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래신력품 제21에서는 지용의 보살에게 불법의 일체를 의탁하여 멸후 흥경을 부촉하고 축루품 제22에서는 지용의 보살 이외의 보살도 포함한 일체의 보살에게 법화경 흥경을 권유하고 허공회가 끝납니다.

그 후 무대는 다시 영추산으로 돌아와, 영추산회가 시작됩니다. 양왕보살, 보현보살 등의 대보살과 제천선신이 석존 멸 후, 법화경의 광선유포와 그 실천자인 법화경의 행자를 수호할 것을 맹세하고 법화경은 종료됩니다. 석존의 설법은 멸후에 법화경을 넓히는 사람들 ‘마땅히 부처와 같이 존경해야 한다<당여경불>’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